



最近北方三角關係(中.소.北傀)와 北韓의 反應分析

1974. 7.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7.

연구기관 : 사단법인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 이 석 우

目 次

1. 序 論	3
2. 最近 北方三角関係 動向	6
3. 分 析	33
4. 結 論	41

1. 序 論

國際政治의 解氷무드와 함께 韓半島 問題는 새로운 變化의 징후를 강력히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關係 특히 美國과 日本, 蘇聯 및 中共을 包含한 四角關係가 構造的으로 어떤 變化의 可能性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第二次 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韓半島에 밀어 닦았던 冷戰構造는 그이상 더 存在理由를 상실해 가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사실상 冷戰의 主役이었던 美國과 蘇聯이 비록 제한된 것이지만 어느정도 進영간의 開放을 許容하고 있는 情勢하에서 韓半島問題도 커다란 影響을 받을 수 있는 範圍에 들게 된 것이다.

美·蘇間의 開發的 和解關係摸索은 世界政治의 패턴을 多元化시켜 놓았으며 障當間的 對立이 아니라 相互 交流와 接觸의 시발을 가져다 주었다. 너는 美國大統領의 中共訪問과 이룩 인한 兩國間的 關係개선, 日本 다나카 首相의 中共訪問과 日·中共國交正常化등 일련의 세기적사건들은 大戰直後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對立과 葛藤이 國際關係의 유일한 行動原理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대면해 주었다.

이러한 世界情勢속에서 中·蘇關係는 상당히 逆強的인 面을 나타냈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의 기치 아래서 강력한 同盟國으로 行動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中共과 蘇聯은 國境紛爭과 이데올로기적 論爭으로 부터 시작하여 現在에는 극복하기 힘든 對立關係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兩國間의 對立關係는 國際政治的 側面에서 한층 더 침예화 될 수 있었다. 東南亞地域에서의 中·蘇間의 勢力衝突 인도양을 中心으로 한 勢力競争 등은 中·蘇關係가 對外的으로 勢力競争 내지는 葛藤關係로 進전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蘇聯은 새로이 아시아 集團安全保障體制의 構想을 發表하고 實際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그와같은 蘇聯의 構想을 가리켜 「反中共包圍網을 形成하려는 陰謀」라고 단정하였다. 특히 中共은 1973年 8月 「十全大會」에서 中共에 對한 「蘇聯帝國主義의 不意의 습격」可能性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은 中·蘇關係는 北韓의 外交行態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해방후 부터 韓國戰 勃發時 까지 對蘇一辺倒의 外交를 지속시켜 왔던 北韓은 韓國戰을 계기로 中共에의 依存度를 높힐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中蘇紛爭의 渦中에서 北韓의 外交패턴은 소위 「自主性」宣言으로 變容 維持되어 왔으며 아직도 教條主義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北韓의 對外的行動은 中·蘇關係의 緊張과 對立으로 상당한 디렘마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와같은 點에서 北方의 三角關係 즉 「北韓 - 中共 - 蘇聯」의 關係는 韓半島問題에 對한 接近을 위해 主要한 分析對象이 될 수 있다고 보겠다.

이는 실제로 韓國의 安保나 또는 外交政策을 전개해 나가는데 必要할 것으로 予想되는 바 보다 더 면밀한 分析이 요망된다.

本稿에서는 주로 最近에 나타난 北方 三角關係에 관한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이들간의 關係를 알아보고 이러한 關係에서 北韓의 外交半徑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인가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특히 問題點 별로 北韓과 中共 및 蘇聯이 표명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서 여기서 밝혀진 차이성을 검토해 보고 나아가 우리의 外交政策上의 対応策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內容의 記述에 있어서는 政策報告書 形式으로 하여 나타난 問題點들을 간단하게 알아 보고자 한다.

2. 最近 北方三國의 動向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蘇 聯
1. 亞洲集團 安 保	論 . 評 回 避	<p>○ 中共 隸屬시 키려는 것임. (73.1.20 周恩來)</p> <p>○ 「아시아」諸 國을 支配·分 化시키며, 勢力 圈을 擴大시키 려는 것임. 極東地域國家들 은 超大國의 陰謀策動을 打 破시켜야 함. (73.4.12 안치원 「에카 페」 總會演說)</p>	<p>○ 中共包含, 모든 「아시아」國家 同等資格參加主張 (73.8.15 「브레 즈네프」)</p> <p>○ 中共은 帝國主 義 反動勢力과 野合, 「아시아」 集團安保 反對 (73.8.26 「프라 우다」)</p> <p>○ 「아시아」集團 安保는 그 어느 나라를 反對하려 는 目的이라는 非難은 誤道된 論理 (73.9.25 「그로미코」)</p> <p>○ 「아시아」集團 安保構想은 中·</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2.領土紛爭	論 評 回 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은 歴史的 侵略事實을 抹殺 하기 위해, 国境 地域 名称을 「러시아」語로 変更(73.3.6 신 화사) ○ 国境地帶에 150 萬의 軍隊를 集結시키고 中共을 侵略하려는 蘇聯의 計劃은 모두 失敗로 돌 아갈 것임. (73.5.2 中日友好協會長 廖承志) ○ 蘇聯社会帝國主義는 帝國主義로 서의 侵略的 本 	<p>蘇關係改善促進 (73.9.11 「프라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에 對해 아무런 領土의 要求도 없으며, 自主權의 尊重, 平等, 內政不干涉의 原則에서 關係改善 希望. 힘을 行使하지 않고 国境問題를 調整하여야 할 것임. (73.9.24 「브레즈네프」) ○ 北京의 對外 政策은 蘇聯領土에 對한 어 리석은 要求 (73.8.26 「프라우다」)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3. 对美·日 接 近	<p><美·中共共同声明 反应></p> <p>○ 美·中共共同声明发表を契機, 美帝追従者들 内部에서는 더욱 큰 混亂이 일어나고 있음. (72.3.4 노동신문)</p> <p>○ 中国에 对한 封鎖孤立政策의 總破綻 意味 (72.3.4 노동신문)</p> <p><「닉슨」訪蘇와 「브레즈네프」訪美에 对한 反应> 論 評 回 避</p>	<p>性에 아무런 變化 없음 (73.8.24 人民日報)</p> <p>○ 中共은 平和共存 5原則下에 对外關係 遂行 (72.2.28 美·中共 声明)</p> <p>○ 中共은 결코 第3 国問題 흥정 않을 것임. (72.2.28 美·中共 声明)</p> <p>○ 「브레즈네프」 訪美는 複雜한 心理下에 이루어</p>	<p><对美接近></p> <p>○ 美国과의 關係 改善은 地球上에서 國際的 기후를 根本적으로 變更시키는 전반적 過程의 유기적 構成部分 (73.9.24 「브레즈네프」)</p> <p>○ 美·蘇關係는 第3 國을 反对하거나 損害를 끼</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北韓의 对美態度〉</p> <p>○ 对美政策은 内政干涉排除, 美軍撤収, 「언커 크」解体가 이루 어져야 바꿀 수 있음 (72.5.26 金日成 NYT 「솔 스베리」会見)</p> <p>○ 对美 通商, 經 濟關係樹立에 反 對치 않으며, 駐 韓美軍 撤収하면 이러한 關係歡迎 (72.6.21 金日成 WP 「해리슨」会 見)</p>	<p>졌으며, 自己 矛盾狀態의 露呈 임. (73.6.22 周恩来)</p>	<p>될 目的을 갖고 있지 않는 条件 에서 實現되고 있음. (73.9.25 「그로미코」)</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 美国人民과 美帝와는 区别, 美国人民과는 關係改善希望 (72.6.21 金日成 「해리슨」)</p> <p>○ 美帝가 부르짖는 平和에 對하여 絶對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되며, 反帝, 反美鬭爭을 弱화시켜서도 안됨 (73.9.9 金日成)</p> <p><日·中共国交樹立 反應></p> <p>○ 北韓人民들은 日·中共国交樹立이 極東과 「아시아」의 緊張緩和에 寄与하는 것으로 歡迎</p>	<p><對日接近></p> <p>○ 兩國間에 存在하고 있었던 非正常的인 狀態의 終止符이며, 戰爭狀態의 終結임. (72.9.29 中·</p>	<p><對日接近></p> <p>○ 「田中」首相의 訪蘇는 兩國關係 發展의 重要出発点 (73.9.24 「브레즈네프」)</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72.10.3 労働新聞社説)</p> <p><日外相 訪蘇, 「그로미코」訪日, 「田中」日首相 訪蘇></p> <p>論 評 回 避</p>	<p>日共同声明)</p> <p><蘇聯의 对日接近 論評></p> <p>○ 日・蘇協力은 (「추메니」에서 「나흐도카」까지 「파이프」連結) 蘇聯의 反中共 攻撃能力 提高 시키는 結果임. (73.5.15 中共 友好 訪日 団長 廖承志)</p>	<p>○ 兩國의 友好 善隣 및 協力 關係로 樹立코 지 하는 것이 蘇聯의 意圖임. (73.9.25 「그로미코」)</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北韓의 对日態度></p> <p>○ 韓・日条約 廢棄가 对日国交樹立의 前提條件이 아님 (72.4.27 金日成 日本3社)</p> <p>○ 日本政府가 어떠한 方針을 取하든間에 關係없이 韓日条約 特히 第3条는 無効가 되었다고 생각함. (73.8.4 윤기복)</p> <p>○ 北韓人民은 日本軍国主義를 反对하는 鬪爭을 繼續 힘있게 벌릴 것임. (73.9.9 金一 報告)</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 中共의 印支 3個国 人民들의 立場에 對한 堅 決한 支持 表明 은 싸우는 革命的 人民들을 繼 統 積極 支持 聲援하려는 確固 한 決意表示임. (72.3.4 勞動 新聞)</p> <p>※ 中·蘇代表團 派遣規模 1) 73.9.9 結 行事</p>	<p>○ 美·中共은 亞·太地域에서 霸權 不追求 (72.2.28 美·中共 共同聲明)</p> <p>○ 蘇聯은 「아시아」에서 霸權 確立을 爲해 「아시아」集團 安保體制를 構想 (73.4.12 「에카 페」中共代表 安致遠)</p> <p>○ 美帝는 自身の 衰退를 認定, 越南撤退 不免 (73.8.24 中共 10全大會)</p>	<p>○ 中共은 核力을 背景으로 東南亞 에 새로운 軍事 政治的 勢力圈 形成을 企圖 (73. 8.26 「프라우다」)</p> <p>○ 中共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 反對는 「헤게모 니」의 目的을 追求하고 있는 毛沢東主義者들의 策動을 어렵게 하기 때문임. (73.9.11 「프 라우다」)</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4. 亞洲反帝 共同戰線	<p>中共→高位 3 個 代表派遣 李先念副首 相 包含 蘇聯→1 個代表 團(「노비 꼬브」副 首相)</p> <p>○ 美帝를 反对 하는 鬪爭을 벌리기 위해서는 國際的 反帝·反 美共同戰線을 強 化해야 함.</p> <p>○ 反帝 反美共 同 戰線을 이룩 하고 反美鬪爭을 廣範히 展開하기 위해서는 一致한 步調로서 美帝國 主義에 打撃을 주고 反擊을</p>	<p><對北韓></p> <p>○ 反帝革命鬪爭 支持</p> <p>○ 戰鬪的 親善 團結 強調 (73.9.9 北韓創 建 25 周年 毛沢 東 祝電)</p> <p>※ 73.10.2 교관 화 第 28 次 UN 總會 基調演說에 서 北韓代辯演說</p> <p><對印支></p> <p>○ 全力을 다하여</p>	<p>○ 蘇聯은 平和와 社會主義 實現의 決定的인 鬪爭에 百萬의 援助와 支持를 주는 것 을 自己의 國際 的 義務로 認定 (73.7.10 「브 레즈네프」)</p> <p>○ 現時点에서 社 會主義國家들간의 團結과 協調의 全面的 鞏固化, 社會主義世界와</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加해야 함. (73.9.9 北韓 創建 25 周年 金一報告)	「라오스」, 「캄 보디아」, 越南人 民의 正義의 事 業支持 (73.4.1 人民日報 社說) ○ 越南人民의 正 義의 鬭爭이 最 後의 勝利를 達 成할 때까지 堅 決히 支持 (73.9.2 人民日 報 社說) ※ 73.10.12中共 「크메르」의 UN 議席을 「시아누 크」政權과 代替 시키기 위해 压 力 作用 <特異動向> 1) 73.8.31 人民日 報, 金日成祝電 大書特筆	民族解放力量들間 의 同盟強化가 特히 重要的 意 味가 있음. (73.7.18 蘇·越 盟共同聲明) ○ 革命은 輸出되 지 않으나 反革 命의 輸出과 人 民들의 內政에 對한 帝國主義 干涉에 反對하여 언제나 堅決히 싸우고 있음. (73.7.10 「브 레즈네프)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 毛主席 再選 祝賀</p> <p>○ 10全大会路 線에 따라 偉 대한 成果達成 을 祝願</p> <p>2) 73.9.17 「풍 피두」 大統領</p> <p>○ 中共, 美軍의 韓國駐屯 不反 對</p> <p>○ 中共은 金日 成式 統一方案 不願 (韓半島 現狀打破 招來 할 統一方案)</p> <p>3) 73.9.29 「시 하누크」, 「크메 르」 反政府 「게릴 라」 들이 中共과 越盟으로부터 援 助받지 못하고</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5. 民族解放 鬭爭支援	○ 中共이 自由와 解放을 위한 모든 被壓迫人民들과 被壓迫民族들의 鬭爭을 支持하고 있는 것은 싸우는 革命的 人民들을 繼續 積極 支持 성원하려는 確固한 決意表示임. (72.3.4 노동신문)	있다고 밝힘. 4) 73.10.1 中共 3大機關紙 共同社說 ○ 亞洲反帝共同戰線에 關해 言及回避 ※ 精神的 連帶性 強調로 轉換 ○ 中小國家는 統一戰線 形成 美·蘇를 孤立시켜야 함. (72.1.1 人民日報元旦社說) ○ 世界 모든 人民은 革命, 自由, 獨立을 追求하고 있으며, 中共은 各國人民의 解放 鬭爭을 支持함. (72.2.8 美·中共 共同聲明)	○ 世界에 造成된 새로운 影響關係 社會主義國家들의 政治, 經濟, 軍事 威力的 強化, 民族解放 運動의 鞏固化와 勞動 및 共產主義運動 昂揚이 平和와 社會的 進步偉業과 今後 地位에 現實的 性格을 決定할 것임.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 北韓은 모든 나라 人民들의 革命鬭爭을 支持 聲援하는 것을 自己의 高상한 國際主義的 義務로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있음.</p> <p>(73.9.9 北韓創建記念宴會에서의 金日成演說)</p> <p><中東戰에 對한 反應></p> <p>○ 美帝의 恣虐 하 「이스라엘」 侵略軍이 6日 UAR「시리아」에 同時攻擊 開始 (73.10.7 中放)</p>	<p>○ 現 國際情勢는 各國人民에게 有利, 帝國主義 現代修正主義, 各國 反動派에 不利 (73.8.24 中共 黨 10全大會 政治報告)</p> <p>○ 現今 世界의 主要傾向은 革命 임 (73.10.2 교관화)</p> <p>○ 中共政府와 人民은 「이스라엘」의 罪行에 憤慨하며 이를 糾彈</p> <p>○ 反「아스라엘」</p>	<p>(73.7.18 蘇聯·越盟共同聲明)</p> <p>○ 「베트남」에서 의 勝利는 蘇聯 및 다른 社會主義 大家庭國家들이 各方面에 걸친 強力한 援助의 結果임.</p> <p>(73.8.15 「브레즈네프」)</p> <p>○ 埃及의 平和가 威脅받을 境遇 兩國間 友好條約 (71.5) 을 發効 시킬 것임.(73. 10.7 「포드고르니」)</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 北韓은 美帝와 「이스라엘」侵略者들을 反对하여 싸우는 埃及와 「시리아」에 「軍事的 援助를 包含한 物心兩面의 援助」를 절대 淸한 決定 採択 (73.10.18 尙희원)</p> <p>○ 北韓은 「아랍」人民의 便에 서서 온갖 形態의 支援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確 認함. (73.10.18 金日成)</p>	<p>戰爭鬭爭期間에 中共은 언제나 당신들의 便에 서있음. (73.10.8 희봉비 外交部長)</p> <p>○ 美·蘇가 中東 事態의 責任을 「아랍」人民에게 轉嫁 (73.10.25 人民日報)</p> <p>※ 周恩來, 北京 駐在 埃及, 「시리아」大使와 會 談코 「아랍」의 對「이」鬭爭支持 表明</p>	<p>※ 73.10.9 「브 즈네프」 「브레디 안」 「알제리아」 大統領에 埃及, 「시리아」支援呼 訴 「뎃세지」發送</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6. 國際政治	<p>※ 北韓操縱士 53 名이 73. 10.10 現在 埃 及基地에 駐屯 (駐埃及 美外 交官 3 等書記 官「토크톤」)</p> <p>○ 오늘 全般的 國際情勢는 우 리 人民의 革 命鬪爭과 世界 進歩的 人民들 의 革命偉業에 크게 有利하게 發展하고 있음.</p> <p>○ 美帝를 우두 머리로 하는 帝國主義者들의 侵略과 戰爭政 策은 全般的으 로 破産되어 가고 있음. (73.9.9 金一報告)</p>	<p>○ 現 國際情勢 는 帝國主義와 現代修正主義에 不利(73.8.24 10 全大會)</p> <p>○ 世界의 緊張 緩和을 美·蘇 兩國이 破壞 (73.10.2 駐 UN 中共代表 교 관화)</p>	<p>○ 國際緊張緩和은 紛爭解決手段으로 戰爭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 뿐 만 아니라 國家 間에 完全 平等 과 호혜의 基礎 위에서 協調를 發展시키는 것을 前提로 함. (73.9.24 「브 레즈네프」)</p> <p>○ 5大強國(美 英, 仏, 蘇, 中 共)은 自律的</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歐洲安保></p> <p>○ 北韓은 歐羅巴의 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歐羅巴 社會主義 國家들을 비롯하여 이 地域 人民들이 기울이고 있는 努力에 全的인 支持 表함.</p> <p>(73.9.9 金一 報告)</p>	<p><歐洲安保></p> <p>○ 「西歐의 緊張緩和는 幻想에 지나지 않는다」고 蘇聯의 全歐 安保 提議를 警告 (73.8.21 周恩來)</p> <p>○ 美·蘇 兩國은 다른 國家들을 代弁하려 하고 있으나 항상 歐洲 國家들의 分割을 企圖하고 있음.</p> <p>(73.5.18 周恩來 AFP 記者會見)</p> <p><核禁問題></p> <p>○ 美·蘇 核實驗 制限協定 締結後 10年間 蘇聯은 100餘次 核實</p>	<p>으로 國防費를 10%씩 減縮, 이를 저개발국 開發基金으로 轉用할 것을 提議함.</p> <p>※ 73.9.25 「그로미코」 UN 總會 演說</p> <p><核禁問題></p> <p>○ 核武器 使用 禁止를 包含한 世界軍縮會議를 위한 實際的</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7. 各国对内 政治와 關聯論調	○ 社会主義 나라 들과 共産党들은 内政不干涉 및 同志的 協調의 原則에 忠實해야 함 (72.12 소비 알 創建 50周年 최용건)	驗 実施 (73.8.5 人民 日報) ○ 蘇聯은 말로 만 核禁追求, 實 際는 核軍備 強 化 (73.8.23 人民日報) ○ 中南美地域 非核地帶設置 支 持 (73.8.21 中 共政府 發表)	準備 必要함. (73.9.25 「그 로미코」 UN 總會) ○ 蘇聯사람들은 나라의 民族的 統一을 위한 條 件을 保障하려는 朝鮮勞動黨과 政 府와 全体 朝鮮 人民의 常時的 努力에 깊은 共 感을 가지고 대 하고 있음.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8. 南北對話		○ 蘇聯은 말로만 · 社会主義이고 實 際는 帝國主義임. (73.10.2 駐 UN 中共代表교관과)	(73.9.9 「모스 코」放送) ○ 中共 10 全大会 의 文件들은 毛沢東主義者들의 反人民的이며 反 社会主義的인 性 格을 다시한번 確証하고 있음. (73.9.4 「이스 베차」紙
	○ 南朝鮮人民들의 圧力과 世界人民 들의 強力한 輿 論때문에 南北高 位級 秘密會談 提議 (72.9.5 金日成 每日 「다카하시다께 하고」對談 ○ 南北으로 들어 진 家族·親戚들	○ 71.4.12 北韓 平和統一 8 個項 支持. (72.2.28 美·中 共 共同聲明) ○ 7.4 共同聲明 은 平和的 自主 統一을 위한 良 好한 시작. 이는 北韓 自主 平和統一路線의	○ 南北赤十字會談 은 韓半島 情勢 緩和에 큰 意義 를 갖고 있음. ○ 重要한 것은 南北의 広範한 階層이 北韓의 「이니시아티브」 를 認定하고 있 다는 點임. (72.9.22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을 찾는 데서 풀어야 할 先決問題는 이것을 充分히 保障할 수 있는 「自由로운 環境과 条件」을 마련하는 것임.</p> <p>(73.3.24 金泰禧 赤十字 5次 會議)</p> <p>○ 南北사이에 現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을 그만두고 兵力과 軍備를 縮小해야 하며, 海外로부터의 戰爭武器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물론 모든</p>	<p>勝利 (72.7.8 人民日報)</p> <p>○ 南北韓 外勢排除 条件下 自主, 平和統一 南北對話 支持 (72.10.3 駐 UN 中共代表 團長 교판화)</p> <p>○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對話 促求 (北韓 創建 25周年 毛沢東祝電)</p>	<p>「프라우다」)</p> <p>○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間에 對話의 길이 열린 것을 歡迎 (73.10 日・蘇 共同聲明)</p> <p>○ 蘇聯은 南北間의 軍事的 對決을 終息시키며, 나라의 統一을 위한 條件을 保障하려는 朝鮮의 「상시적 努力에 깊은 共感表示」 (73.9.9 「브레즈네프」 金日成에 祝電)</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外国軍隊를 撤去시켜야 함. (73.3.15 調節委第2次會談)</p> <p>○ 兩朝鮮의 李厚洛을 비롯한 中央情報部장관들을 帶는 南北對話에 參加시킬 수 없다는 것을 内外에 嚴肅히 闡明함(73.8.28 金英柱聲明)</p>	<p>○ 李厚洛 情報部長은 調節委에 繼續 앉아있을 資格이 없으니 南北調節委는 當黨 全民族의 意思를 反映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當局者들 뿐 아니라 各政黨·社會團體, 各界各層人民의 代表가 參加해야 함(73.9.6 北京放送)</p>	<p>○ 韓半島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롭고 建設的인 움직임은 첫째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信義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임. (73.9.25 「그로미코」)</p> <p>○ 金英柱의 聲明은 韓半島의 民族的 統一을 回復하는 方途에 關한 會談에서 南韓政權이 取하고 있는 妨害的 立場을 正當하게 批判하고 있음. (73.9.8 모放)</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9. 6. 23 宣言과 UN 同時 加入	<p>○ 6. 23 5大綱 領 發表</p> <p>① 南北軍事對 峙 解消</p> <p>② 多方面合作 交流實現</p> <p>③ 大民族會議 召集</p> <p>④ 單一國號에 依한 聯邦制 實施</p> <p>⑤ 單一國號로 UN 加入</p> <p>○ 6. 23 平和統一 外交政策은 「 2 個의 朝鮮」의 永久分裂을 公認 받자는 것으로 이는 南北共同 聲明을 짓밟고 對話를 破綻으로 이끄는 破壞行爲</p>	<p>○ 金日成의 「6. 23 重要談話」 는 韓半島 緊張 緩和의 基礎임.</p> <p>○ 5 個項의 新 統一方案 積極 支持 (73. 6. 24 周恩來)</p> <p>○ 南韓當局은 國 家の 平和的 統 一을 바라는 것 이 아니라 「 2 個의 韓國」을 劃策함으로써 韓 國分裂 永久化 企圖 (73. 7. 11 이선남)</p> <p>○ 南北韓의 UN 同時加入提案은 明白히 韓國의 分斷을 合法化 하고 永続化 하</p>	<p>○ 金日成의 提案 (5大綱領)은 韓半島와 極東에 서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平和 的,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의 統一을 위한 또 하나의 重要한 發言 (73. 6. 26 코쉬긴 「권희경 面談時 發言」)</p> <p>○ 北韓의 重要 한 발기로 하여 韓半島에서 새로 운 肯定的인 기 후가 造成되었음. (73. 8. 15 「브 레즈네프」)</p> <p>○ 朝鮮半島에서 一定한 肯定的인 變遷이 일어나고</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10. 駐韓美軍 問 題	<p>임. (73.9.26 北韓의 對UN 備忘錄)</p>	<p>려는 企圖임. (73.10.2 駐UN 中共代表 교관 화)</p>	<p>있는 現条件 밑 에서 朝鮮의 平 和的인 民主主義 的 統一을 가로 막는 새로운 인 위적 障礙가 添 加되는 것을 許 容해서는 안됨. (73.10.19 「모 스크」放送解説)</p>
	<p>○ 美軍撤収가 平 和會談의 前提条 件이 아님. (72.4 金日成 日本3社)</p>	<p>○ 中共은 弱小国 에 對한 外勢의 侵略, 干涉, 支配 顛覆을 反對하며 外軍撤収 主張 (72.2.28 美·中 共 共同聲明)</p>	<p>○ 中共은 帝國 主義的 反動勢力 과 野合, 東南亞 美軍駐屯에 同意 하고 있음. (73. 8.26 「프라우다」)</p>
	<p>○ 美國의 對中· 蘇 接近으로 駐 韓美軍 名分 喪 失(72.5 金日成 NYT)</p> <p>○ 美軍撤収条件 으로 各各 10</p>	<p>○ 美軍撤収, 「언 키크」解体 主張 (北韓創建 25 周 年 毛沢東 祝 電)</p>	<p>○ 外軍이 南朝鮮 을 占領하고 있 는 条件 밑에서는 南朝鮮住民들의 貧窮과 欠乏을 더 深化시키는</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万 兵力 減縮 (72.5 金日成W.P)</p> <p>○ 韓國이 願하던 南北間 統一問題 合意到達時까지 美軍駐屯은 무방 하나 UN旗使用 排除해야함(72. 6 金日成「카나다 토튼 토스타」紙)</p> <p>○ 南朝鮮駐屯 美軍에게 UN軍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撤去시키 기 위한 措置를 取해야함. (73. 9.9. 金日成報告)</p> <p>○ UN은 第28次 總會에서 美國軍 隊에서 UN軍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撤去시켜 야 함(73.9.26 北韓의 對UN備 忘錄)</p>	<p>○ 「언커크」: UNC는 北韓에 對한 威脅的 存在이며, 韓半 島 緊張造成의 根源임. (72.10. 3. UN駐在 中 共代表 교관화)</p> <p>○ 韓國의 獨自 的이고 平和的인 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條件을 造成하기 위해 駐 韓 UN軍司 解 體에 同意해야 하며, 駐韓 全外 國軍撤収에 同意 해야 함(73. 10.2 駐UN中共 代表 교관화)</p>	<p>結果를 가져올 것임. (73.9.9 「모스크」放送)</p> <p>○ 朝鮮人民의 內 政을 外部로 부 터 干涉한다는 것은 朝鮮의 平 和와 民主的 統 一에 새로운 障 碍로서 許容될 수 없는 것임. (73.9.25 「그로 미코」)</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11. 經濟協 力 問題	※ 中・蘇의 对 北 經濟協力에 公式論評 回避	○ 蘇聯의 社会主 義集團 相互 經 濟援助政策은 名 目上의 經濟協力 일뿐이며, 實質的 으로는 經濟的 支配임. (73.4.4新華社) ○ 中共의 对北韓 援助 1) 1953-1971 3 億 3 千万 \$ 2) 6 個年計劃 遂行을 위한 援助 1970 年 2 億 \$ 借款(無利子) 3) 72 年貿易額 1 億 5 千万 \$ 4) 中共의 对北 韓 軍事援助 66-70=1,500 万 \$ 71=500 万 \$ 72=8,500 万 \$	○ 朝鮮勤勞者들의 成果는 社会主義 的 國際主義 現 實의 生動하는 모범이며, 이는 형제적 社会主義 나라들의 效果的 協調와 互相援助 의 結果임. (73.9.9「모스 코」放送) ○ 지금 蘇聯은 朝鮮의 近 30 個 의 重要한 人民 經濟建設을 도와 주고 있으며, 蘇 聯技術者 數百名 이 일하고 있음 (73.9.18「모스 코」放送)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12. 对韓國 態 度	<p>○ 北韓中放 73.10.3 字 雄 基精油工場 第1 段階工事 다그치 자 強調</p> <p>○ 現在 北倉火力 發電所 出力 80 萬KW (73.10 現在)</p>		<p>○ 雄基精油工場은 73.9.9 北韓創 建 25 周年 前 夜에 操業着手 (73.9.18 「모 스코」放送)</p> <p>○ 北倉火力發電 所 第 8 号機가 建設되었으며, 出力은 100 萬 KW 에 達함. (73.9.18 「모 스코」放送)</p> <p>※ 蘇聯의 对北 韓 軍事援助 66 - 70 = 2億千萬\$ 71 = 1億 5千萬\$ 72 = 5千萬\$</p>
	<p>○ 南朝鮮当局은 「U」大会 契機 로 北韓과 社会 主義나라들 사이</p>	<p>○ 72.10.17 戒 嚴宣布는 韓半島 의 平和的 再統 一念願을 꾀고</p>	<p>○ 모든 「아시 아」国家들이 例外없이 平等 善隣, 協力關係</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에 해기를 박으며, 社会主义国家間의 團結瓦解에 利用하려 하고 있음(73.8.14 北韓大学体育協會声明).</p>	<p>人民彈压 強化를 위한 計劃된 行爲(72.10.19 新華社)</p> <p>○ 朴徒党은 似而非憲法을 強要함으로써 独裁体制을 構築, 이는 南北會談에 支障 招來(72.12.1 新華社)</p> <p>○ 朴集團은 「팻쇼」統治를 強化하고 戰爭準備에 박차를 加하고 있음.(73.7.11 人民日報社說)</p>	<p>를 樹立하기를 希望(73.7.10 「브레즈네프」)</p> <p>○ 韓半島 情勢를 繼續 緩和하며, 南北韓의 平和統一을 自身의 힘으로 早速히 達成할 추가적 前提條件이 지금 지어지고 있음.(73.9.13 UN 總會와 關聯, 「모스크」放送)</p> <p>○ 蘇聯은 蘇聯의 對「아시아」外交政策을 支持하는 「아시아」어느 國家와도 提携할 用意가 있음.(73.9.25 「그로미코」)</p>

項 目	国 家		
	北 韓	中 共	蘇 聯
		※ 1) 73.8.14 東支那海上에서 「大昌」号 遭 難, 船員 9.26 帰還措施 (船員 8 名)	※ 1) 韓国人 유덕형 蘇聯入国 許容 (73.5.27) 2) 蘇聯船舶의 濟 州道海峡 通過 (73.5.31 蘇聯 商船 「베네꼬 프」号) 3) 「유니버시아드」 大会 韓國選手團 参加 (73.8.15 「모스크」大会) 4) 韓國經濟人 蘇 聯入国 (73.6.15 전택 보, 김용완) 5) 「사할린」僑胞 送還用意 表明 (73.6.15 日赤)

3. 分 析

가. 最近 北方 3角 關係의 發展은 全般的인 立場에서 考察할때,

- (1) 中·소 對立이 的연히 妥協할 수 없는 極限狀況으로 치달고 있으며,
- (2) 中共·北韓 關係는 表面, 內實的으로 相當히 密着된 傾向을 보이고 있는 한便
- (3) 蘇聯·北韓 關係는 表面的으로 相互 異見을 露呈하고 있는 點 等이 特徵임.

나. 對亞 政策에 있어선 中·소가 서로 相對方의 包圍, 逆包圍를 위한 政策 展開에 汲汲하고 있는 가운데, 北韓으로서는 中·소 對立을 利用, 雙方의 援助 獲得 增大에 焦點을 둔 對 中·소 關係를 維持하려 努力하면서 亞細亞反帝 統一戰線의 主軸이 되려 試圖하고 있음.

다. 한便 韓半島 關係에서는 中·蘇·北韓 共히 「緊張緩和」를 追求하고 있으나,

- (1) 北韓은 現 南北對話를 斷絶, 韓半島의 새로운 秩序를 摸索하고 있으며,
- (2) 中共은 北韓의 立場을 全面 支援하고 있으나, 美·中共 關係, 對소 關係를 意識하여 韓半島에서의 美軍駐屯을 바라고 있으며,

- (3) 蘇聯은 對韓 柔軟姿勢를 보이면서도 韓半島에서의 外勞撤収
에서는 北韓과 見解를 같이하고 있는 한便,
- (4) 南北韓 UN 同時加入 問題에 對해서는 表面的으로는 北韓立
場을 支持하고 있으나 裏面的으로는 同時加入을 支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5) 中共과 北韓은 蘇聯과는 달리 韓半島에서의 〈現狀 固定化〉
에는 反對하는 立場을 表示하고 있음.

※ 〈北方 三國의 共通點과 差異點〉(動向中心)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蘇 聯
共 通 點			
① 民族解 放 闘 爭 支 援	○ 民族解放闘爭支 援을 國際的 義 務로 規定, 모든 支 援 闡明 (金日成 73.9.9)	○ 各國 人民의 解 放 闘 爭을 支 持, 現今의 世界 를 革命의 世界 로 規定 (73.10.2교관화)	○ 社會主義 나라 들의 民族解放 力量의 闘爭이 國際 緊張緩和에 決定的 寄與 (73.3.2 모스크 放送)
	※ 中共路線同調 中共의 被壓迫 民族 闘爭 支持	※ 第3勢力 「리 더」 自處	※ 現實的 狀況을 最大로 參酌한 支 援 態 度 堅 持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는 革命的 人 民들에 對한 積極 支持聲援 決意 表示 (72.3.4 勞動新 聞)</p>		
② 南北對話	<p>○ 南北對話를 對南戰略一環으 로 利用했으나 對話 通한 赤 化 戰略路線 轉換 示唆 (73.8.28 金英柱聲明)</p>	<p>○ 北韓의 對話 主導와 主張을 始終一貫〈積極 支持〉하고 對話 斷絶에도 〈積極 支持〉</p>	<p>○ 南北對話를 緊 張緩和에 도움으 로 看做 支持 (71.9.22 프라우 다)했으나 對話 斷絶에는 〈正當 한 批判〉으로 論評, 消極態度 (73.9.8 모스크 放送)</p>
差異點 ① 駐韓美軍 撤収	<p>○ 美軍撤収가 北韓의 當面 目標이지만, 段</p>	<p>○ 表面的으로는 駐韓美軍撤収 主 張, 美·中共 接</p>	<p>○ 駐韓美軍의 即 刻 撤収主張</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蘇 聯
	階的 美軍撤收策 에 同意 ※ 72年以後 對 UN 共產側 決議 案	近과 함께 美軍 의 事實上 駐留 認定 (72.2.28 美· 中共 聲明)	※ 中共이 駐韓美 軍 在留에 同意 하고 있음. (73.8.26 프라 우다)
② 5大綱領 및 UN 同時加入	○ 하나의 朝鮮으 로 加入 主張 ※ 中共의 「모 델」適用	○北韓의 對韓國 非難에 加担하고 南北同時 加入에 積極 反對 ※ 台灣處理 問題 와 結付	○北韓 5大綱領 에 直接 支持 回避코 同時加入 에도 < 새로운 人爲的 障礙를 添加해서는 안된 다 > 는 消極的 態度 堅持 (73.10.19 모스크바 放送)

라. 이와같은 北方 3角 關係의 發展속에서 中·蘇·北韓이 對盟
政策, 對韓半島 關係에서 追求하고 있는 底意는 다음과 같음.

(1)北韓의 底意

- (가) 韓半島 赤化를 위한 새로운 「패턴」 摸索
- (나) 強大國의 「現狀 固定化」 追求打破
- (다) 中·蘇의 對韓 接近 傾向 沮止
- (라) 中·蘇의 對北 競爭的 支援 誘導로 實利 獲得
- (마) 金日成 唯一體制에 對한 國民의 思想動搖 抑制

(2) 中共의 底意

- (가) 對美·日 關係改善, 蘇聯의 對亞進出 牽制
- (나) 「아시아」 反帝 統一戰線을 形成, 「아시아」 共產勢力의 盟主로 活動
- (다) 實質的 北韓의 代弁者 役割 強化, 北韓의 對中共 偏向을 誘導
- (라) 自體의 經濟, 軍事 能力向上을 위한 時間的 余裕 獲得

(3) 蘇聯의 底意

- (가) 「아시아」 國家로서의 地位와 役割 強化
- (나) 中共 包圍 위한 具體的 方案의 實現
- (다) 中共보다 于先한 對韓 柔軟姿勢 表示로서 機先 掌握
- (라) 「緊張緩和」 追求로 經濟不振 改善

〈对亚政策斗 關聯 北方三国 動向 底意〉

共通点	底 意		
	中 共	蘇 聯	北 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緊張緩和 追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의 奇襲 可能性 減少 ○ 自体安保力 強化 ○ 第3勢力 伸張 助長으로 美·蘇 牽制 ○ 对西方關係 增進促進 ○ 「닉슨·독트린」實現 促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蘇間 軍事 的 对決 回避 ○ 对西方 影響力 增進 ○ 自体經濟力強化 ○ 平和的 方法으로 世界 赤化 促進 ○ 「아시아」集團 安保實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背後 支援勢力 的 中·蘇의 態度 勘案 ○ 駐韓美軍 撤收 助長 ○ 对外 影響力 增進 ○ 对南赤化를 위 한 素地 造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亞細亞 反帝 統一 戰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对美·日 關係 改善으로 表面上 反帝戰線 強化는 弱화되었으나 裏面的으로는 如前 히 大陸周辺 地域 의 反帝團結의 強化 圖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亞洲 反帝戰線 退色 ○ 汎亞細亞의 新 蘇圈 誘導 (亞洲 集團安 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对亞 및 汎世 界的 反帝戰線 強化 促求

共通点	底 意		
	中 共	蘇 聯	北 韓
	(北韓, 越盟,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差異点 ○ 現状 固定化問題	○ 表裏不同: 蘇聯의 壓力을 勘案, 對美 接近을 促進시키기 위해 表面上 乃至 暫定的으로는 現状 固定化를 追求하나, 內面的으로는 大陸周邊地域에서 의 強力한 中共 勢力圈 構築企圖	○ 固定化 促求: 亞細亞 集團安 保構想 實現을 통한 對亞 制霸를 目的으로 現 狀 固定化를 促求 ○ 美軍의 對亞撤 収 促進이 目的 ○ 對中共 包圍網 構築	○ 固定化 反對 ○ 對南赤化 達成 의 稀薄性 ○ 對內體制 崩壞를 憂慮 ○ 對南 平和的 競爭에서의 優位 確保 無望
○ 影響力 擴大問題	○ 美·蘇의 對亞 影響力 排除와 對美協力 增進 必要性的 兩面性 때문에, 中共의 態度는 消極的임.	○ 對亞影響力 및 對中共 壓力強化를 積極圖謀	○ 對中·蘇 自主的 位置를 固守하면서 對西方 改善을 圖謀하고, 韓國의 對外地位 弱화 企圖

〈对韓半島 政策과 關聯한 北方 三国의 底意〉

共通点	底意		
	中共	蘇聯	北韓
○ 南北對話 促求	○ 周辺地域의 緊張緩和 助長 ○ 韓半島에서의 外勢 排除 ○ 赤化素地 助長	○ 汎世界的 緊張緩和·追求의 一環 ○ 美·日 勢力 排除 ○ 亞洲 集團 安保 構想 實現 促求	○ 對南 赤化素地 助長 ○ 體制 繼續 維持 ○ 軍備 壓迫에서 脫皮

差異点	底意		
	中共	蘇聯	北韓
○ UN 軍 撤収	○ 美軍撤収後의 軍事的 空白을 日·蘇가 補填할 것을 憂慮, 美軍 撤収를 暫定的으로 反對	○ 美軍의 早速 撤収를 希求함으로 自体勢力으로 代替 促求	○ 美軍撤収 貫徹 固守로 韓國의 弱화 企圖
○ UN 同時 加入	○ 北韓의 對소 偏向을 警戒, 北韓의 主張을 政治的으로 代弁	○ 北韓의 對中共 傾斜를 警戒하면 서 南北韓 UN 同時加入을 裏面的으로 支持	○ 對南 赤化統一 可能性 稀薄과, 體制維持의 憂慮 등으로 積極 反對

4. 結 論

가. 予想되는 中·蘇의 対亞 勢力 再編 움직임.

(1) 現段階에서 表面的으로 나타난 「아시아」에 投影된 中·蘇·美·日 4 大國 動向은 「特定 2 個國과의 지나친 反目 密着이 許容되지 않는 制約性」으로 해서 既存 「아시아」 秩序의 急激한 變化를 招來하지 않고 있음.

(2) 다만 4 大 強國의 勢力 再編을 위한 政策方向에서의 中·蘇의 態度는 圈内보다는 自國利益 于先의 政策展開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今後의 틀이 되고 있음.

(가) 蘇 聯

實質的 軍事力을 背景으로한 獨白的 地域 紛爭 介入 能力 보지로 対亞 進出의 機會 捕捉에 注力할 것이 予想되며, 特히 韓半島의 경우 中共 封鎖 政策의 一環에서 紛爭 惹起시킨 以後 調整者로 登場하므로써 影響力을 擴大코저할 可能性이 있는바 今後 方策의 展望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集團安保體制 實現으로 表現된 蘇聯의 対亞 政策은 對中共 包圍, 封鎖 戰略을 具體化 시키면서 「아시아」 國家로서의 役割을 強化하기 위해 中共 周邊諸國에 對한 浸透를 積極化할 것으로 보임.

둘째: 韓半島 政策에 있어선 北韓의 對中共 偏向 牽制, 南韓에서의 絶對的인 美·日 進出을 抑制함으로써 韓半島를

對中共包圍 戰略 基地 및 亞太地域 進出의 前哨 基地로
서 確保하기 위해 보다 積極的인 努力을 傾注할 것으로
予想됨.

세째 : 특히 韓國에 對하여는 最近 取해온 一連의 柔軟姿勢를
보다 擴大하면서, 韓半島에서의 美·日·蘇·日의 力關係가
均衡을 維持함과 동시에 美·日의 對北韓 接近趨勢에 따
라 伸縮性을 보일것임.

네째 : 한편 北韓에 對해서는 軍事 經濟援助를 背景으로 한
影響力을 強化하면서, 北韓이 試圖하는 對外 進出에 對해
서는 中共 以上의 助力을 傾注할 것이나, 南北同時 UN
加入 試圖에 對해서도 繼續 消極態度 堅持 予想

(나) 中 共

蘇聯을 意識한 國內 力量 備蓄의 目的과 同 壓力 牽制
를 위해 「아시아」에서의 美國 影響力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下에서 口頭上의 好戰的 口號를 採択하고 있는바
今後 方策은 다음과 같음.

첫째 : 對亞政策에선 「아시아」 反帝 共同戰線을 形成, 盟主로
서 活動하려고 試圖하면서, 周邊諸國에 對한 影響力을 強
化, 蘇聯의 對中共 包圍網을 打破 하려고 努力할것임.

둘째 : 韓半島 政策에선 一定 期間 美軍의 韓半島 駐屯을 現
實的으로 認定, 韓半島에서의 美·蘇 對立 狀態(戰後體制)
를 存屬시켜, 蘇聯의 對韓半島 進出을 抑制하고 日本의

對韓 進出을 牽制 하려고 繼續 努力할 것임.

예제 : 韓國에 對하여는 北韓과의 關係를 고려, 韓國의 對中共 接近 努力을 繼續 外面할 것 이지만, 美·中共 關係가 새로운 段階로 發展할 경우, 中共의 對韓 態度는 柔軟 姿勢로 轉換될 것임.

예제 : 北韓에 對해서는 繼續 北韓의 代弁者的 役割을 強化하여 對中共 密着을 誘導하여 나갈 것임.

나. 北韓의 위치와 今後方策

(1) 앞으로 「아시아」 4角 體制下의 勢力 均衡下에서 韓半島의 위치는 基本的으로는 南方 3角 關係와 北方 3角 關係라는 力学 構造가 維持 되면서도 韓半島에 對한 4大國의 物理的 介入(支援) 條件 및 意志는 漸次 減縮되는 가운데 独立的 戰略地로 浮刻될 것임. (民族 內部 問題化)

(2) 이러한 展望下에서 北韓이 處할 위치는

(가) 北方 3角關係에서는 中·蘇 對立의 終慮 展望이 없는 狀況下에서 均衡 因子로서의 役割 浮刻으로 自己 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有利한 地盤을 確保하고 있으며,

(나) 南方 3角 關係에서는 美國의 支配的 影響力 때문에 韓國은 美·日關係를 利用할 만한 素地가 적어 對美 依存에서 脫皮가 困難하며,

(다) 또한 北方 3角關係의 構成員인 中·蘇는 自發的으로 韓

國에 接近해올 可能性이 없을뿐 아니라 설사 그런 意圖가 있다하더라도 北韓에 對한 中·蘇의 競爭態度 때문에 同意 圖는 牽制될 可能性이 있으며,

(라) 南方 3角關係에서 「아시아」 秩序의 調整者 役割을 노리는 美國과 韓半島의 經濟 浸蝕으로 政治的 影響力 까지를 確保하려는 日本은 北韓과 接近, 交流를 擴大 하려는 態度를 分明히 하고 있어 이의 接近이 容易하며,

(마) 多極化 體制로 轉換하는 國際社會에서 韓國은 對美 從屬關係라는 定型때문에 共同 步調가 不拘하나, 北韓은 第3勢力을 主導하는 中共에 便乘, 地位向上 및 支持 確保가 可能하며, 全般的으로 北韓이 有利한 立場에 놓여질 것으로 展望됨.

다. 北韓의 對厄策

(1) 國際情勢評價

(가) 4大國의 情勢 評價에 있어

- 美國의 對中共 包圍 政策이 破綻되었음이 實證되었음으로, 「닉슨·독트린」은 積極 推進될 것이나 이도 亦是 破綻狀態에 있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으며,

(73.9.9 金日成 : 美帝의 힘의 破産에서 오는 危機를 막으려는 「닉슨」主義도 亦是 破綻을 면치 못하고 있음)

- 政治的 獨自性을 摸索하고 있는 日本 軍國主義 復活은 事實이나 海外 侵略은 어려운 立場으로 보고 있으며,
- 中共은 國際社會 進出을 本格化함으로서 國際的 範圍에서 資本主義 對 共產主義의 〈力量關係의 變化〉를 加速化 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 反面,
- 蘇聯은 對亞 影響力 擴大를 통해 「아시아」· 地域國家의 中共 偏向을 預防함과 동시에 美國의 漸進的 後退를 逆用하고 日本의 進出을 牽制할 것으로 判斷하고 있음.

(나) 또한 美·中·日·蘇의 4角 體制 形成에 따른 影響 評價에 있어서는,

- 強大國 中心의 國際問題 處理에 있어 美·日間의 矛盾이 擴大될 것이며, 中·蘇의 對美·日 政策은 共히 北韓으로 하여금 對美·日關係 發展에 있어 便乘이 可能한 것이나, 反面 北韓에 對한 消極的 支援과 對韓 柔軟姿勢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 兩 陣營間의 影響關係에 있어서 中共은 變化 加速化를 主導할 것이며, 蘇聯은 對美·日關係 展開에서 北韓에게 有利한 條件을 附與해 줄것 이라는 點에 着眼, 中·蘇의 對立 持續에도 不拘, 이에 便乘, 雙方 多같이 利用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4角 體制 形成으로 因한 韓半島 問題의 〈民族 內部化〉 促進 過程에서는 南方 3角 關係의 離間과 北方

3角 關係의 現狀維持가 可能하다고 判斷,

現時期를 原則的으로 戰爭보다는 對南 革命 工作 展開의 適期로 評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北韓의 政策方向

- 強大國 中心의 國際問題 處理에 있어 美·日間 矛盾은 擴大될 것이나, 中·蘇의 對美·日 政策이 北韓에 肯定的인 面 (美·日의 對韓 離間) 보다는 否定的 側面으로의 展開되는 立場 (對韓 柔軟態度)에 當면해서는 圈內 國家와의 關係增進에 外交的 力點
- 兩 陣營間 影響關係에 있어 美·蘇의 軍事的 兩極化 體制에 便乘, 安保面에서 蘇聯의 支援 保障을 받고, 中共의 國際的 變化 加速化에 便乘한 地位向上에 力點을 두고 自主路線을 徹底히 貫徹하는 政策을 展開할 것이며, 對北 支援의 圈內 結束 弱화를 第三勢力과의 紐帶強化 및 西方 浸透로서 補完하면서 對韓 國際的 地位의 우위를 確保코져 할것임.
- 또한 強大國의 平和共存 路線에 順應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下에서 「民族解放鬪爭」을 強調, 中·蘇 等 圈內的 支援 誘導에 注力하는 一方 民族內部化 名分の 對南 暴力革命工作을 最大限 展開할 것으로 보임.